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출국한다고 3일 밝혔다. 귀국일은 10일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회의',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과 금융시장 상황에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KT, 내일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 열린다

KT가 5일 광화문 광장에서 도심형 문화 행사 'K 페스타'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의 전신인 한성전보총국 개국 14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5일, 6일, 22일에 진행된다. KT는 광화문 놀이마당을 'KT 웨스트 파크'로 꾸며 누구나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KT

LG U+, 재난현장 아동 위한 '이동형 놀이터' 개발

LG유플러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재난현장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심리상담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기존 재난구호 활동에 놀이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가 규정한 아동의 '놀 권리'에 따라, 놀이가 트라우마 회복과 일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LG유플러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12가구 집고치기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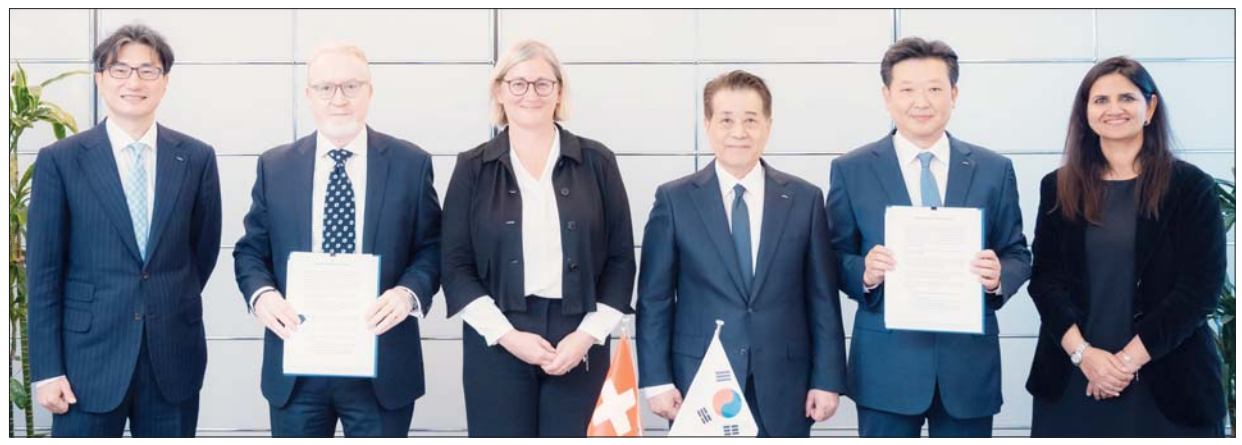
3일 농협에 따르면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학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관내 농가 12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과 박덕흠 국회의원, 정영철 영동군수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

BNK부산은행, 저소득 가정 아동에 7.8억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 가정 자녀 돕기 기금' 7억88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부산교육사랑카드'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해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왼쪽)이 기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포스코그룹 "제도·문화·기술혁신으로 안전일터 조성"

안전 전문 컨설팅사 SGS와 '맞손'
이달 포스코이앤씨 안전진단 착수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 협력도



포스코그룹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SGS社와 포스코그룹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MOU 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사와 손잡고 안전 경영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SGS와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안전 진단 분야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컨설팅 기업으로, 전 세계 2600여 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등 선진 프로세스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내 포스코이앤씨 안전 진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안전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교류하고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안전 전문 회사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미 지난달 유럽 현지에서 SGS와 최신 안전 관리 기법과 유럽의 대표 정책을 공유하며 글로벌 벤치마킹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인화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전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DOOH 선봬

〈디지털 옥외광고〉

'갤럭시 Z폴드7·Z플립7' 주제

삼성전자가 서울역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을 주제로 한 초대형 미디어아트 디지털 옥외광고(DOOH)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서울역에서 역사 내부를 파노라마 형태로 둘러싼 초대형 미디어아트 광고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길이 91m, 높이 5.5m, 면적 610.5㎡의 압도적 크기로 몰입도 높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한국의 예술적 요소를 강조해 병풍 모양으로 펼쳐지는 갤럭시 Z 폴드7, 민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갤럭시 Z 플립7 등 전통적 이미지와 최신 갤럭시 AI 기능을 결합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서울역에서 진행하는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초대형 미디어아트 디지털 옥외광고 모습. /삼성전자

'생성형 편집'으로 남자 모델이 입은 옷을 바꿔보고, '제미나이 라이브'를 활용해 남자 모델과 여자 모델이 각각 가장 어울리는 갓과 댕기를 추천받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폴더블 신제품과 갤럭시 AI 기능을 주목도 높은 방식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차현정 기자 hyeon@

코이카, 협력 中企에 ESG 경영 컨설팅

동반위와 지원사업 '맞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이카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는 높은 평가를 받은 협력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보유 업체는 ▲금리우대(국민·기업·신한·하나·경남은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기회 ▲환경·에너지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코이카는 동반위 선정 ESG 우수 중소기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ODA 시행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인증을 획득했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을 돕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코이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기부

기부금 2145만원 전달

공영홈쇼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온기를 전달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및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2145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전남·경남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4월에도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산불 피해 성금 4000만원을 임직원 모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 수해 지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몰 특별관 개설 등의 정책 지원도 펼쳤다.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왼쪽)이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복구 현장에서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지역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성금 기부와 더불어 피해 기업·생산자의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체계적 직업훈련 구축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서
김경아 사장, 노동부 장관 표창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사진)이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안양세무서장 박수현